



직립혁명: 혹은 인간이 서서 걷는 까닭은

응구기와 디용오

먼 옛날, 인간은 네 발 달린 다른 짐승들처럼 다리와 팔로 걸어 다녔다.

인간은 산토끼나, 표범 혹은 코뿔소보다도 빨랐다.

다리와 팔은 다른 어떤 신체기관보다 서로 가까운 사이였다: 그들은 비슷한 관절이 있어서, 어깨와 엉덩이, 팔꿈치와 무릎, 발목과 손목을 지녔으며; 두 발과 두 손을 가졌는데, 발과 손 끝에는 각각 발톱 손톱이 달린 다섯 발가락과 다섯 손가락이 있었다. 손과 발은 엄지부터 새끼까지 다섯 개의 손가락, 발가락이 가지런히 달려있는 것이 서로 비슷했다. 그때는, 엄지 발가락처럼, 엄지 손가락이 나머지 손가락에 가까이 붙어 있었다. 다리와 팔은 서로를 사촌이라고 불렀다.

두 팔과 두 다리는 서로 도와가며 몸이 가고 싶은데로 몸을 데려다 주었다; 시장이며, 상점이며, 나무를 타거나 산을 넘으며, 몸이 가야 할 곳이 어디든 데려다 주었다. 심지어는 물에서도, 함께 힘을 합쳐 몸이 뜨거나, 헤엄치거나, 자맥질하게 도와주었다. 그들은 민주적이고 평등한 관계였다. 또 그들은 다른 신체기관 덕분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었는데, 예를 들면, 입의 도움으로 소리내고, 귀의 도움으로 듣고, 코의 도움으로 냄새를 맡으며, 눈의 도움으로 볼 수 있었다.

다른 신체기관들은 두 손과 두 발이 함께 일하는데 장단이 아주 잘 맞는 것이 너무 샘났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특기를 두 쌍의 사촌들에게 빌려주어야만 하는 것이 분했다. 질투심때문에 그들은 다리와 팔이 자기들을 이곳 저곳으로 데려가 준다는것을 잊어버렸다. 그들은 다리와 팔을 상대로 계락을 꾸미기 시작했다.

혀는 뇌에게서 계락을 받아, 즉시 그것을 실행했다. 혀는 두 팔과 두 다리가 힘이 얼마 만큼 센지 궁금하다고 큰소리로 묻기 시작했다. 누가 힘이 더 셀까, 궁금하다 했다. 여태껏 서로가 무엇을 갖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신경쓰지 않았던 사촌지간 팔다리는 입을 빌려 서로 자기가 몸에 더 중요하다고 내세우기 시작했다. 그것은 곧 서로 자기가 더 우아하다는 다툼으로 바뀌었다; 팔은 짧고 굵은 발가락을 놀리며, 길고 얇은 손가락을 지닌 손을 자랑했다. 발가락도 지지 않고 맞서며, 비쩍 마른 사촌이라고 손가락을 놀렸다. 말다툼이 여러 날 계속됐는데, 그때문에 때로는 팔다리가 함께 힘을 합쳐 일하기가 어려웠다. 이는 결국 권력 다툼의 문제가 되었다; 그들은 다른 신체기관들에게 중재를 부탁했다.

힘겨루기를 제안한 것은 혀였다. 모두들 탁월한 생각이라고 찬성했다. 그나저나 무엇으로 겨루나? 어떤 이는 다리씨름과 팔씨름을 제안했다. 다른 이는 칼싸움을, 저글링을, 달리기 경주를, 또는 체스나 체커같은 게임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하기 어렵다든가, 한편에게 불리하다든가 하는

이유로 하나같이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뇌에게서 생각을 빌려 간단한 해결책을 내놓은 것도 역시 허였다. 사지의 각 쌍이 차례로 서로에게 제기하는 도전을 겨루자는 것이었다. 팔다리는 찬성했다.

힘겨루기시합은 강 근처 숲속 빈터에서 열렸다. 이제 신체기관들은 몸내부의 권력싸움에 말려 들었기 때문에 몸에 위협이 되거나 몸을 놀래킬 수 있는 어떠한 사태에도 대비할 수 있게 모두들 최고 경계 상태에 들어갔다. 두 눈은 어떤 거리에서든 가장 작은 위험이라도 볼 수 있게 멀리 넓게 감시했고; 귀는 어떤 거리에서든 가장 작은 소리라도 들을 수 있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으며; 코는 감시하는 눈과 주의하는 귀가 혹시나 놓칠 수도 있는 비밀스러운 위험의 냄새를 맡을 수 있게 콧속을 깨끗이 했고; 혀는 언제든지 위험해라고 소리치며 고함을 지를 수 있게 준비하고 있었다.

바람은 힘겨루기의 소식을 숲과, 물과, 허공 사면팔방으로 전했다. 가장 먼저 모인 것들 중에는 네 발 달린 동물들이 있었는데, 개중 큰 놈들 여럿은 자기들이 선의로 왔다는 것을 알리려 녹색 나무가지를 쥐고 있었다. 그것들은 표범과 치타와 사자와 코뿔소와 하이에나와 코끼리와 기린과 낙타와 긴뿔소와, 짧은 뿔소와 영양과, 가젤과, 산토끼와 두더지와, 들쥐로 이루어진 각양각색의 무리였다. 물속에 사는 것들과 하마와 물고기와 악어는 윗몸만 강둑 위에 내어 놓고 나머지 몸은 물속에 담근 채로 있었다. 두 발 달린 것들과 타조와 뿔닭과 공작은 흥분하여 날개를 퍼덕였다; 새들은 나무에 앉아 짹짹거리며; 귀뚜라미는 쉬지 않고 지저귀었다. 거미와, 벌레와 지네와, 노래기는 땅위며 나무로 기어 다녔다. 카멜레온이 살며시 조심스럽게 시간을 들여 걸는데 반해, 도마뱀은 한 곳에 머무르는 일 없이 뛰어 다녔다. 원숭이와, 침팬지와 고릴라는 한 나무가지에서 다른 나무가지로 널뛰며 다녔다. 나무와 수풀조차 좌우로 살랑살랑 흔들며, 고개를 숙이다가는, 일어나 서 있곤 했다.

입이 노래로 힘겨루기 대회를 시작했다.

우리는 행복해지려고 이것을 한다

우리는 행복해지려고 이것을 한다

우리는 행복해지려고 이것을 한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의 자연에서 나왔기에

팔과 다리는 시합결과를 순순히 받아들이기로 맹세했다; 떼쓰기도 없고, 참여거부를 협박하지도 않으며, 항의 파업이나 태업도 없을 것이다.

팔이 첫번째 도전 종목을 발표했다: 땅위에 놓인 나무조각을 들어 던지기. 왼쪽 다리가 댔던 오른쪽 다리가 댔던 혹은 두 발이 댔던 땅위에 놓인 나무조각을 들어 던져야 한다. 두다리는 경기중 언제든지 서로 상의 할수 있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발가락을 따로따로 쓰든 같이 쓰든 맘대로 할 수 있다. 두 다리는 나무조각을 뒤집으려 애쓰기도 하고; 밀어보려고 애쓰기도 하며; 온갖 수를 써보았으나 나무조각을 제대로 집을 수가 없었다: 다리가 나무조각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을 몇 인치 정도 차내는 것이 전부였다. 그것을 보던, 열 손가락은 입에게서 소리를 빌려 웃고 또 웃었다. 도전자인 두 팔은 미인대회에 나온 양 날씬한 제 모양을 뽐내며 걷다, 전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무조각을 들어올렸다. 그들이 나무조각을 숲속 안까지 던지자 경쟁자와 관객들사이에서 찬사의 탄성이 터졌다. 두 팔은 여러 가지 다른 기술도 뽐냈는데: 그릇에 담긴 쌀에서 작은 모래를 골라내기도 하고; 바늘에 실을 꿰기도 하며; 무거운 목재를 옮기는데 쓰는 작은 도르레를 만들고; 창을 만들어 꽤 멀리 던지고는 발가락이라면 꿈도 못 꿀 움직임이나 동작을 해냈다. 두 다리는 주저앉아 자기들의 날씬한 사촌들이 뽐내는 재주와 유연성을 신기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관객들의 팔은 다리를 아주 분하게 한 동료 팔에게 우뢰같은 감동과 연대의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두 다리는 아직 패배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들이 앉아 있는 모습이 약간 기죽어 보이긴 했지만, 엄지 발가락 둘이 모래 위에 원을 그리며, 이길 수 있는 도전 종목을 궁리하고 있었다.

마침내, 다리와 발가락이 도전을 제기할 차례가 됐다. 그들은 자신들의 도전은 간단한 것이라고 했다. 두 손은 온 몸을 들어 원의 한 점으로 부터 다른 점까지 날라야 한다. 오만한 손가락은 얼마나 어리석은 도전인가 생각했다. 그것은 볼 만한 광경이었다. 몸의 모든 것이 거꾸로 뒤집혔다. 두 손이 땅에 닿자; 두 눈도 땅에 가까워졌고, 그로 인해, 시야가 심하게 제한됐다; 먼지가 코로 들어가서 재채기가 나왔고; 두 다리와 열 발가락은 허공에 떠 있게 됐다: 냐요 주우, 관객들은 소리치며 장난스럽게 노래를 불렀다.

냐요 냐요 주우

하쿠나 마타타

푸아타 냐요

하쿠나 마타타

투루케니 안가니

그러나 관객들의 시선은 두 손과 두 팔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휘황찬란한 재주를 보여주었던 신체기관들은 고작 일 야드도 가지 못했다. 몇 발자국만, 두 손은 고통 속에 울부짖고, 두 팔은 비틀거리며 흔들리다 몸을 땅에 떨어트리곤 말았다. 그들은 그대로 휴식을 취하는 듯 하더니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잘 버텨보려고 열 손가락을 가능한 한 넓게 펴보려고 애썼지만, 엄지손가락이 늘어날 뿐이었다. 옆으로 재주 넘기도 해보았지만, 재주넘기를 제대로 하려면 발을 써야 하기 때문에 반칙으로 처리되었다. 이젠 발가락이 웃을 차례였다. 끼익거리며 웃던 손가락과는 다르게 보이려고 발가락은 입에게서 굵은 목소리를 빌려 웃었다. 놀림을 받고서 매우 화가 난 두 팔은 몸을 들어 나르려고 필사적으로 힘을 써 보았지만 한걸음도 옮길 수 없었다. 두 손과 열 손가락은 기진맥진이 되어서 포기하고 말았다. 두 다리는 자기들의 운동솜씨를 자랑할 수 있게 되어서 기뻐다: 두 다리는 제자리 걸기를 하다가, 빨리 걸기 시작했고, 뛰다가 몇 번 점프를 하더니, 온몸을 떨어뜨리지 않고, 높이 뛰기까지 했다. 관객들의 발은 지지와 연대의 의미로 땅에 쿵쿵 자신들을 굴렸다. 두 팔은, 자기들이 먼저 상대를 놀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손을 들어 그와 같은 행동은 스포츠 정신에 위배된다고 항의했다.

그런데, 관객들을 포함해서 거기 있던 모두는 팔에게서 무언가 이상한 것을 눈치챈다: 손이 몸을 들어 나를 때 늘어났던 엄지 손가락이 나머지 손가락과 멀리 떨어진 채 었던 것이다. 경쟁상대인 신체기관들이 막 다시 웃으려 할 때, 그들은 또 다른 것을 눈치챈다; 멀리 떨어진 엄지 덕분에 손이 사용하기 불편해 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의 움켜 쥐는 힘이 향상된 것이다. 이게 뭐지? 기형이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힘으로 변하다니!

신체 기관들은 힘겨루기의 승자를 정하기 위해 한손의 손가락 숫자나 한발의 발자락 숫자와 같은 날짜인 닷새동안 토론을 했다. 하지만 아무리 해도, 마땅한 승자를 정할 수 없었다; 사지의 각쌍은 자기들이 제일 잘하는 것을 제일 잘했다; 누구도 서로가 없으면 아무 것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철학적 사변의 시간이 왔다: 몸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모두가 묻기 시작했고, 그것은 자신들 전부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 제대로 기능하려면, 모든 신체기관이 제 몫을 해야 한다.

그래서 모든 신체기관들은 다시는 이런 힘겨루기는 하지도 말고 서로가 서로를 방해하지도 않도록, 앞으로는 몸이 똑바로 일어나 발을 땅에 굳게 디디고 팔은 허공을 가르며 걷기로 했다. 몸은 그런 결정을 반겼지만, 어린 아이들만은 인간이 원래 어떠했는지 잊지 않도록 팔다리로 기는 것을 허용했다. 신체기관들은 해야 할 일을 분담했다: 다리는 몸을 들어 나르지만, 일단 목적지에 가서는, 도구를 만들고 쓰는 것이 필요한 일은 모두 손이 하기로 했다. 다리와 발이 몸을 나르는 힘든 일을 맡은 반면, 손은 스스로를 내밀어 자신들의 솜씨로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반드시 먹을 것이 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맡았다. 입은, 아니 그 보다는, 이빨은 음식을 씹어, 그것이 목을 넘어 뱃속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맡았다. 배는 그 모든 이로운 것을 쥐어짜고, 몸 구석구석 그것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연결된 흡수관에 쏟아 부을 것이다. 그런 다음 배는 쓰고 남은 것들을 몸의 배설물 처리장으로 보내고, 그것을 통해, 몸은 들판에 배설물을 내보내거나 흙에 묻어 땅을 기름지게 할 것이다. 초목이 자라 열매를 맺으리라; 손이 그 종 알마를 따서 입에 넣으리라. 오, 그래, 생명의 순환이라.

놀이와 여흥조차 적절하게 분담되었다: 노래하기, 웃기, 말하기는 입이 맡고, 달리기와 축구는 주로 발이 맡으며; 달리기가 필요할 때 발이 나서는 것을 빼면 야구와 농구는 손의 몫이 되었다. 육상경기를 할 때는, 주로 발이 운동장을 차지했다. 명확한 분업은 인간의 몸을 놀라운 생체기계로 만들었는데, 인간은 무슨 일을 하든 결과의 질과 양에서 가장 큰 동물들 마저 앞설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체기관들은 자신들이 합의한 영구적 방책이 여전히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높은 곳에 있는 머리는 자기가 땅을 짚고 있는 발보다 잘났다고 생각하거나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다른 신체기관은 주인인 자기를 모시는 하인에 불과하다고 여길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들은 권력에 있어서, 머리와 머리 밑에 있는 어떠한 신체기관들도 서로 평등하다고 강조했다. 그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신체의 어느 한 부분이 괴롭거나 즐거울 때 몸의 모든 부분이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분명히 했다. 그들은 입에게 주의를 주었는데, 입이 이것은 혹은 저것은 내 것이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입이 이것 혹은 저것의 주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온몸이 그렇다는 뜻이라 했다.

신체기관들은 노래했다:

우리몸에는

하인이 없다
 우리 몸에는
 하인이 없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섬긴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섬긴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섬긴다
 혀는 우리의 목소리를
 나를 안아주면 나는 너를 안아주지
 우리가 건강한 몸을 만든다
 나를 안아주면 나는 너를 안아주지
 우리가 건강한 몸을 만든다
 아름다움이 곧 단결이다.

건강한 몸을 위해
 우리는 함께 일한다
 건강한 몸을 위해
 우리는 함께 일한다
 단합이 곧 우리의 힘이다

이 노래는 온몸의 찬가가 되었다. 몸은 오늘날까지 이 노래를 부르고, 이것은 인간과 동물 혹은 인간과 직립혁명을 거부한 것들이 어떻게 다른 지를 가르쳐 준다.

무엇이 일어났는지 자기들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네 발 달린 동물들은 직립혁명을 성취 할 수 없게 되고 만다. 노래 부르기라니 얼마나 터무니 없는 짓인가. 입은 먹으려고 있는 것이지 노래하려고 있는 것은 아니지. 동물들은 자연의 보수정당을 결성해서 자기들의 방식을 고수하며 여태껏 지냈던 습관을 바꾸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인간들은 신체기관이 서로 연결되어 협력하는 것에서 교훈을 얻을 때는 잘 해 나가지만; 몸과 머리가 서로 적대적인 관계의 당사자라고 여기거나, 어느 하나가 다른 것 보다 우위에 있다고 느낄 때는 직립혁명을 거부했던 자신들의 사촌인 동물에 가까워진다.

응구기 와 디옹오는 현재 어바인 소재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영문과와 비교문학과와 석좌교수로 있다. 1938 년 케냐 농민의 대가족 가정에서 태어나, 케냐에 있는 카만두라, 망구우, 킨요고리 초등학교와 얼라이언스 고등학교, 우간다 캄팔라에 있는 머케러리 대학 (당시 런던대학의 분교)와 영국에 있는 리즈대학에서 수학했으며 덴마크, 독일, 영국, 뉴질랜드, 아메리카, 아프리카에 있는 대학들로 부터 열개의 명예박사학위를 받았다. 또한 미국 예술문학학술원과 미국 예술과학학술원의 회원이기도 하다. 저서로는 *십자가 위의 악마*, *마티가라*, *까마귀 마법사* (기쿠유로 쓴 작품들의 영어 번역본)등이 있다.

Serk-Bae Suh teaches Korean literature as associate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His publications include *Treacherous Translation: Culture, Nationalism, and Colonialism in Korea and Japan from the 1910s through the 1960s* (UC Press, 2013)